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전현숙, 이미라*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Hyensook Jeon, Mira Lee*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와 보건계열학과 졸업예정자 5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s 검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경제 수준은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과 선택 동기와 학과 선택 결정을 학생 스스로 했는지의 여부는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외 요인은 취업처, 전공만족도, 전공계열로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보건계열 학생에게 전공계열과 취업처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care related students. A total of 515 third and fourth year graduate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2 and May 13 of 2016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9.0. The economic state had an influence on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however, the motive of application and decision of the department of selection did not have any influence.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Moreover, job-seek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The strongest predictor of job-seeking stress was self-esteem. Self-esteem, employment-area,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ollege majors accounted for 24.4% of job-seeking stress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would increase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major and decrease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college majors and employment-area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Key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b-seeking stress, nursing students,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이 지속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2016년 4월,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

본 논문은 대전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Lee, Mira(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el: +82-42-670-9375 e-mail: mrlee@hit.ac.kr

Received October 24., 2016

Revised (1st November 16, 2016, 2nd December 5,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률은 10.9%에 달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1]. 취업 스트레스란,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정신·신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긴장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2].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 증가로 인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사상 유래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스펙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면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면접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면접이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행해지는 대화 또는 말로 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면접관은 짧은 시간 이내에 지원자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지원자의 외적 이미지 즉, 긍정적인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3].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전체적인 신체 및 신체 장식 상태로 표현되는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4]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된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보다는 좀 더 탁월한 외모에 의해 취업이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므로[5] 외모에 대한 만족정도는 취업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모만족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6,7].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수용과 존중,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로서[8],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적 외모 매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왜곡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9].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주요한 영향요인이며[7,10], 대학생의 긍정적인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고,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에서 취업이 주요 쟁점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11,12]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일개 보건대학교 간호학과와 보건계열 졸업예정자로 편의표집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와 12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52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550명을 설문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로부터 IRB승인(1041490-20151210- HR-00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이었으며, 연구진행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진행절차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허락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중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15명의 자료만을 최종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9]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을 Jeon[13]이 번역한 것으로 하였다. 이 도구는 ‘아주 그렇다’ 4점에서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 6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2 외모만족도

외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4]이 사용한 외모에 대한 자기만족과 자기평가를 구성한 내용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14]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가 보고식 척도로 취업스트레스를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평가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검증을 하였다.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79%이며, 나이는 23세 이상이 25.4%이고, 간호학과 졸업예정자가 21.2%, 보건계열 졸업예정자가 78.8%이었다. 대상자가 원하는 취업처는 종합병원이 50.1%이었고 취업처의 결정시기는 졸업학년에 결정한 학생이 63.7%이었으며, 경제수준은 ‘높은편’이라고 응답한 자가 50.3%이었다.

학과외 입학동기에 대해서는 ‘취업률고려’ 51.7%, ‘적성고려’ 19.4%이었으며, 학과선택 결정자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자가 72.4%이고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자는 20.6%이었다. 전공만족도는 81.3%가 ‘만족’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3.0이상’자가 75.1%이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Table 1> 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성별($t=4.73, p<.001$), 나이($t=-3.26, p=.001$), 계열($t=-2.23, p=.026$), 취업처($t=3.084, p=.002$), 경제수준($F=3.993, p<.001$), 전공만족도($F=14.362, p<.001$), 학교성적($F=3.363,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한 결과,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매우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에 있어서는 ‘4.0이상’인 대상자가 ‘2.0 미만’인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성별($t=4.02, p<.001$), 나이($t=-2.36, p=.019$), 취업결정시기($t=2.066, p=.039$), 경제수준($F=4.628, p=.003$), 전공만족도($F=9.14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한 결과,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군이 ‘낮다’고 응답한 군보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매우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성별($t=-2.90, p=.004$),

Table 1.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15)

		Frequency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N	(%)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108	21.0	3.07 (.53)	4.73	3.40 (.68)	4.02	2.63 (.58)	-2.90
	Female	407	79.0	2.85 (.42)	(<.001)	3.15 (.53)	(<.001)	2.84 (.66)	(.004)
Age	≤22	384	74.6	2.86 (.44)	-3.26	3.17 (.56)	-2.36	2.81 (.63)	1.01
	23≤	131	25.4	3.00 (.48)	(.001)	3.30 (.62)	(.019)	2.74 (.71)	(.314)
College majors	Health care related	406	78.8	2.87 (.46)	-2.23	3.21 (.58)	.334	2.73 (.63)	-4.58
	Nursing	109	21.2	2.98 (.44)	(.026)	3.18 (.58)	(.739)	3.04 (.69)	(<.001)
Employment area	General Hospital	258	50.1	2.96 (.44)	3.084	3.24 (.57)	1.362	2.92 (.64)	4.570
	Clinic & Others	257	49.9	2.660(.47)	(.002)	3.17 (.58)	(.174)	2.66 (.64)	(<.001)
Employment decision time	Before Grade graduation	187	36.3	2.94 (.48)	1.553	3.27 (.63)	2.066	2.80 (.69)	.203
	Grade graduation	328	63.7	2.79 (.44)	(.121)	3.16 (.54)	(.039)	2.79 (.63)	(.839)
Economic state	Very High ^a	15	2.9	2.89 (.41)	3.993	3.49 (.75)	4.628	2.82 (.56)	3.575
	High ^b	259	50.3	2.96 (.42)	(<.001)	3.27 (.53)	(.003)	2.71 (.66)	(.014)
	Low ^c	219	42.5	2.82 (.46)		3.10 (.57)		2.87 (.63)	
	Very Low ^d	22	4.3	2.85 (.67)	b>c	3.20 (.80)	b>c	3.05 (.74)	
Motive of application	aptitude	100	19.4	2.94 (.50)	1.936	3.22 (.59)	2.135	2.77 (.70)	.889
	Easy employment	266	51.7	2.87 (.41)	(.103)	3.20 (.54)	(.075)	2.82 (.62)	(.470)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77	15.0	2.99 (.52)		3.32 (.75)		2.68 (.69)	
	high School records	60	11.6	2.81 (.43)		3.04 (.48)		2.85 (.63)	
	Others	12	2.3	2.99 (.61)		3.08 (.36)		2.88 (.89)	
Decision of the Department of selection	Self	373	72.4	2.91 (.46)	1.091	3.20 (.55)	.134	2.79 (.65)	1.408
	Parents	106	20.6	2.89 (.45)	(.360)	3.23 (.66)	(.970)	2.80 (.68)	(.230)
	Teacher	20	3.9	2.80 (.43)		3.20 (.63)		2.67 (.63)	
	Brothers or sisters	11	2.1	2.83 (.45)		3.22 (.40)		3.01 (.53)	
	Others	5	1.0	2.56 (.52)		3.06 (.76)		3.34 (.62)	
Satisfaction of majors	Very satisfied ^d	49	9.5	3.18 (.49)	14.362	3.51 (.67)	9.144	2.47 (.73)	10.048
	Satisfied ^b	370	71.9	2.91 (.41)	(<.001)	3.20 (.54)	(<.001)	2.77 (.63)	(<.001)
	Dissatisfied ^c	79	15.3	2.67 (.50)	a>b,c	2.98 (.52)	a>b,c	3.08 (.56)	a<b,c
	Very Dissatisfied ^d	17	3.3	2.90 (.51)	a>c b>c	3.28 (.87)	a>c b>c	2.86 (.86)	a<c b<c
Academic achievement	4.0 ≤ ^a	64	12.4	2.97 (.46)	3.363	3.20 (.51)	.474	2.80 (.65)	.494
	3.0 ~ 3.9 ^b	323	62.7	2.90 (.45)	(.019)	3.20 (.57)	(.701)	2.79 (.65)	(.686)
	2.0 ~ 2.9 ^c	119	23.1	2.86 (.45)		3.23 (.65)		2.79 (.67)	
	2.0 < ^d	9	1.8	2.52 (.59)	a>d	3.00 (.38)		3.06 (.31)	
		515	100	2.90 (.46)		3.20 (.58)		2.79 (.65)	

계열($t=-4.58, p<.001$), 취업처($t=4.570, p<.001$), 경제수준($F=3.575, p=.014$), 전공만족도($F=10.04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 사후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있어서 ‘매우만족’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았다.

3.3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만족도($r=.631, p<.001$)와 순상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r=-.358, p<.001$)

와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r=-.289, p<.001$)와 역상관계가 있었다<Table 2>.

3.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이중 명목척도인 성별, 계열, 취업처는 가변수로 변환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0.74~0.96의 범위로 0.1

Table 2.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515)

	Self-esteem r(p)	Appearance Satisfaction r(p)	Job-seeking Stress r(p)
Self-esteem	1		
Appearance Satisfaction	.631(<.001)	1	
Job-seeking Stress	-.358(<.001)	-.289(<.001)	1

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38~1.774의 범위로 기준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에서 1.776으로 나타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취업스트레스 모형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24.683, p<.000)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β =-.308, t=-6.030, p<.001), 취업처, 전공만족도 및 전공계열의 영향력이 전체 24.4%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성별, 나이, 전공계열, 취업처,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학교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평균은 4점 만점에 2.90(3.63점/5점척도 기준)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Kim[6]의 연구결과 2.96점보다 낮은 점수였으며, Rosenberg[8] 도구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한 Lee[5]의 연구에서의 3.49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성별,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들 두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 비해 여성과 연령이

적은 대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취업처와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높고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자신의 취업처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력이 낮은 학생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대학 내의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남학생, 23세 이상, 졸업학년 이전 취업결정, 경제적 수준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모만족도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20점으로 치위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15]의 연구결과에서 2.78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Lee[5]의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57.24점인 것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Kim[6]의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 20세 이상,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므로 남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더 낮다는 Cho 등[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연령에 따른 외모만족도는 Hong[16]과 Lee[17] 등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외모만족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25.4%에 해당하는 23세 이상의 학생 그룹이 타 대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N=515)

	B	SE	β	t	p	R ²	adj R ²	F(p)
Constant	3.437	.264		13.016	<.001	.255	.244	24.683(<.001)
Self-esteem	-.441	.073	-.308	-6.030	<.001			
Employment area	.280	.058	.215	4.825	<.001			
Satisfaction of majors	.198	.043	.183	4.559	<.001			
College majors	.257	.071	.1611	3.619	<.001			

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했다가 간호·보건계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기에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적은 외모만족도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성적이 '상'인 그룹에서 '하'인 그룹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Lee[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모만족도는 취업 결정시기가 졸업 이전 학년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분야와 취업처를 미리 결정한 학생은 졸업 학년 이전에 외모를 미리 관리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성별, 전공계열, 취업처, 경제수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취업스트레스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79(61.38점/110점 만점)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15]의 연구에서의 2.28점 보다 높았으며,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Hwang[12]의 연구에서 110점 만점에 53.39점, Lee[5]의 연구에서 52.56점(110점 만점)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간호계열이 보건계열 보다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ee[5]와 Seo[18]등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는 여학생에서 높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처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결과로서 종합병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의원급 취업을 원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이는 Seo[18]의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준비행동이 늘어날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Cheon과 Lee[19]의 연구에서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취업준비활동 자체만으로도 취업 예정자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취업준비활동은 취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적은 취업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대학교의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18]의 연구와 Lee[5], Cho 등[11]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이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볼 때, 간호·보건계열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종합병원에 취업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

고, 종합병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거나 취업준비활동이 많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계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종합병원 취업이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계열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대형병원 수준의 취업처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적절히 하면서도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저학년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성적에 맞는 취업분야와 취업처를 결정하여 취업준비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졸업이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대학생의 적응과 전공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20-23] 학과 선택 동기와 학과 선택 결정을 학생 스스로 했는지의 여부는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 선택 동기와 선택 결정이 대학 생활의 중요시점인 졸업예정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Kim[6], Park과 Son[2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가 순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Jeon 등[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았으며, Kim과 Kim[15]의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에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ckson 등[2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모만족도는 직업 만족도의 11%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외모만족도는 졸업 전 취업스트레스 뿐 아니라 취업 후 직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 취업처, 전공만족도, 전공

계열이 24.4%의 영향력을 보였다. Lee[5]의 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의 39.6%를 우울, 자아존중감, 학년, 우울이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요인이 우울이었다. 또한, Kim과 Kim[1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의 3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ho 등[11]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경제적 상태로 보았으며 설명력은 23.8%였다. 본 연구나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설명력이 낮은 원인은 취업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의 일종이므로 불안과 위협의 감정과 같은 내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외모만족도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 전선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면접에서 걸로 드러나는 외모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 또는 상황 대처능력과 같은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은 타계열에 비해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의 취업처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므로 학생의 취업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지도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재학 중 각 학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내적·외적 요인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영향요인을 강화하여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학년별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학년에게는 취업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우울·자아탄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취업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학년에게는 자신의 학과 성적을 알고 성적과 적성에 맞는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졸업학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상황대처 능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지역 일개 보건대학교 졸업예정자 515명을 대상으로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점 만점에 2.90점이었으며, 외모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20점이었고,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79점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나이, 전공계열, 취업처,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학교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모만족도는 남학생, 23세 이상, 졸업학년 이전 취업결정, 경제 수준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성별, 전공계열, 취업처, 경제수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 수준은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과 선택 동기와 학과 선택 결정을 학생 스스로 했는지의 여부는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간에는 순상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와 역상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외 요인은 취업처, 전공만족도, 전공계열로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보건계열 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계열별, 취업분야 및 취업처별 맞춤형 지도가 필요함을 제기함으로써 간호·보건계열 학생의 구체적인 취업스트레스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전공계열별 특성과 선호하는 취업처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는 간호·보건계열 학생을 위한 취업처 및 학년별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및 취업스트레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 지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Service[Internet]. 2016 Unemployed persons and unemployed rate[cited 2016 October]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53767
- [2] D. J. Kim, "A study on the Theological Students' Stress; Mainly school life and job-see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2002.
- [3] M. K. Cho, E. J. Choi, W. J. Lee, N. Y.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0. No 2, pp. 141-150, 2013.
- [4] M. Y. Kim, "A study on the abolition of school uniforms and personal appearance satisfaction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1984.
- [5] Lee, I. S. 2011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5, 2487-2500, 2011.
- [6] H. J. Kim,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Edu*, vol. 18, no. 1, 62-70,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62>
- [7] M. Jeon, Sang. Jung, S. Cho, J. Hyeon,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ployment, appeara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ome regions.", vol. 15, no. 4, pp. 518-526, 2015.
DOI: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4.518>
- [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Cited by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7-12, 1974.
- [9] Y. Hwang,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elf-esteem and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ivenes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2007.
- [10] B. S. Park, H. Cho, B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09-111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09>
- [11] E. Cho, J. A. Kim, J. Kim, H. Kim, E. Ra, H. Lee,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1, pp. 35-43, 2016.
DOI: <http://dx.doi.org/10.7236/JCCT.2016.2.1.35>
- [12] R. Hwang,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no. 2, pp. 215-226,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15>
- [13]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7-12, 1974.
- [14] H. S. Kim, "A development of Job-seeking Stress Scale and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10.
- [15] S. Kim, Han. Kim,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4, no. 1, pp. 75-84, 2014.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75>
- [16] K. Hong,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MI and body image on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0, no. 2, 348-357, 2006.
- [17] M.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59, no. 8, pp. 97-109, 2009.
- [18] H. Seo, "Issue analysis1: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loyment stress in college students", *Employment Issue*. vol. 1, pp.6-20. 2016.
- [19] M. B. Cheon, G.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of seeking stress for graduand in Korea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6, pp.191-214, 2013.
- [20] M. Lee, H.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21]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vol. 17, no. 3, pp.267-276, 2011.
- [22] J. Lee,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2, no. 3-4, pp. 213-224,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23] Y. Kim, E. Oh,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103-111,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103>
- [24] Y. Park, Y. Son,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to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6, no. 3, pp. 353-361, 2009.
- [25] A. T. Jackson, A. N. Madewell, S. M. Kennis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56-69, 2011.

전 현 숙(Hyensook Jeon)

[정회원]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학, 간호교육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 간호교육